

# “연구 환경에 ‘마당 문화’ 접목”

## 이사람

### 개원 10주년 앞둔 김만원 고등과학원장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고등과학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일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는 김만원 고등과학원장(59)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김 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는 고등과학원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수준의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 국민들이 낸 세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그 결실을 국민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하며 지난 2004년 7월 제3대 고등과학원장으로 부임한 직후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예상보다 적은 인건비 예산 때문에 고민 중이던 김 원장은 어느 날 밤 집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무턱대고 하소연을 했다. 그때 돌아 온 택시기사의 반응은 “아니 어떻게 국가 과학기술을 지탱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낮은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세금이 아깝지 않다”였다.

김 원장은 “고등과학원을 모르는 그 분도 과학의 중요성을 알아 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다”며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올라서서 그런 국민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다행히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힘입어 고등과학원의 위상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한국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고등과학원 교수 2명이 국제수학자총회에서 강연하는 등 해외 인지

도도 개선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96년 개원 이후 연구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개방형 연구환경 및 효율적인 평가체제 구축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연구환경 차원에서 김 원장이 제안한 것은 한국 고유의 ‘마당’ 문화를 활용한 토의 환경 마련이다.

그는 “고등과학원 연구교수진뿐 아니라 어느 대학의 누구라도 자유롭게 찾아와 연구과제에 관해 토의하다 보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



## 뉴스피플

### 인증표준물질 국제심포지엄



정경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 본원에서 물질량자문위원회(CCQM) 워킹그룹(WG) 회의 및 인증표준물질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울산서 PDP 4기 라인 상량식



김순백 삼성SDI 사장은 내달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소재 부산사업장에서 PDP 4기 라인 상량식을 거행한다.

### 유네스코 해양기술 위원회 의장예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유네스코(UNESCO) 해양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백 교수는 앞으로 2년동안 인류 복지증진을 목표로 선박과 해양구조물에 관한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세계 40여 개국 전문가를 이끌고 함께 연구하게 된다.

### 亞太-太 방사선방호학회 회장 피선



김종경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대양주 방사선방호학회 집행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 “2015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창립 70주년 LSI니꼬동제련 구자명 부회장

구자명 LSI니꼬동제련 부회장은 30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종합 리사이클링 사업 및 해외사업 추진, R&D 강화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적 동 제련 업체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세계적 구리 업체들이 합종연횡하는 시장 체제에 대응, 미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변화로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1936년 장항제련소로 시작한 LSI니꼬동제련은 남미 지역에서 수입한 구리를



제련, 현재 연 57만톤의 전기 동을 생산하고 있다. LSI니꼬동제련은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 아돌포 카라피 칠레대사 등 정관계 인사와 구자홍 LSI그룹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생수 LG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최태원 SK 회장, 베트남서 CEO 세미나 주재 최태원 SK 회장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룹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영과 자율경영’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중기 경영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LG전자, 한국전쟁 그리스 참전 용사 방한 후원 LG전자(대표 김상수)가 내달 3일까지 한국전에 참가했던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30일 LG전자 여의도 본사를 방문한 그리스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전시장에서 71인치 금장 PDP TV를 감상하고 있다.



MS-연세대 산학 협력 MOU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연구소(MSR)가 30일 연세대학교와 산학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수 인력 양성 및 이공계 활성화, 교수 연구지원, 아카데미 교류를 위해 협력한다. 정갑영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왼쪽부터)과 윤대희 연세대 부총장, 해리 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아시아 소장, 릭 라시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부사장.

### 오늘 ‘u정부 포럼’ 개최

#### KAIST

김병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장은 31일 오후 ‘유비쿼터스 정부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삼성SDS 후원으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태억 KAIST 산업공학과 교수가 ‘전자태그(RFID) 기술 개요 및 동향’을 발표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 홍익대 유재희 교수

유재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오는 12월 첫 발간될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 아시아판에 등재된다. 유 교수는 이로써 과학·공학 분야에 3년째 연거푸 이름을 올렸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 경제논문 공모전 시상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한 ‘우체국에금보험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당선자를 30일 확정·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전용식씨(공주대)의 ‘동촌지역 우체국 서비스 만족수준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충남대학교 김성연·박종철(충남대 공동연구)씨가, 장려상에는 김미정·조남욱(숙명여대·삼육대 공동연구)·김성한(대전대)·강지혜(연세대) 등이 선정됐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 이보영의 시루에이선 영어 <133> I need more people on my list.

MSN에 있는 거의 모든 목록을 정리한 서니는 갑자기 많은 사람과 연락이 끊겼던 생각에 좀 외로운 모양입니다. 이제야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Sunny: I need to add more people to talk to on MSN. You know how I like variety.

Luke: That means I'm not good enough to talk to?

Sunny: Well, you put an "away" sign on most of the time on MSN and so I need a few substitutes for your absence.

Luke: Well, if you didn't always block or delete your friends from your MSN list, you would have tons of people to talk to. They all like you, remember? You are so moody with even your friends.

Sunny: 나 MSN에 사람들을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 난 다양성을 좋아하잖아.

Luke: 나랑 대화하는 길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Sunny: 넌 맨날 '자리비움' 표시를 해 놓잖아. 그 사이를 채워 줄 사람이 필요해.

Luke: 네가 사람들을 MSN 목록에서 제거하지 않았으면 친구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들은 널 좋아해, 알지? 넌 친구 관계에서도 감정 기록이 크더라.

Luke: Well, why don't you add back all of your "deleted friends" on your list?

Sunny: Nope, I can't do that. Then they will know that they were once deleted by me.

Luke: 그러지 말고, 네가 삭제한 친구들을 다시 등록하는 건 어때?

Sunny: 안 돼.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한 번 내 목록에서 삭제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이보영: KBS·EBS 영어강사, 이비와이스쿨 교문  
<제출: 이비와이스쿨 http://www.eby0579.com>

온라인의 영어선구 eby0579.com

## 고품격의 번역·통역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번역	<b>전문성</b>	<b>품질보증</b>	<b>트랄 서비스</b>	<b>고객만족</b>	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에 번역전문 회사로서 중점적 전문성</li> <li>● 경제, 경영, 법률, 의학, 기술 등 전문분야 모든 언어 지원</li> <li>● 각 분야 3,000여 개체제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통번역사 2,000여명</li> <li>● 직공임금 보장정책</li> <li>● 체계적 질 관리시스템 운영</li> <li>● 외국인 교수진 강사</li> <li>● 언어/사회/문화 차이 고려</li> <li>● 글로벌 협력체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 및 증명서 번역</li> <li>● 홈페이지·SW/TV 번역</li> <li>● 블로그 및 기술문서 번역</li> <li>● 영사/승인/수행 등력</li> <li>● 전자출판(인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얼 서비스 최우선 시행</li> <li>● 24시간 24시간 서비스</li> <li>● 신속한 진행 납기 준수</li> <li>● 엄격한 기밀보장</li> <li>● 저렴한 서비스로 고객만족</li> <li>● 최신 장비, 소프트웨어 보유</li> </ul>	
	<b>번역·통역 전문 TEL : (02) 786-0223</b>				
	<p>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6-2 현대빌딩 10층          홈페이지 : www.softtranslation.com          E-mail : info@softtranslation.com</p>				

## 전문 기술번역의 파트너 소프트웨어번역입니다